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4월 10일(금)

..(윤력 2월 23일)..

Пятница

10 апреля 2026 г.

№ 14 (1218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12일은 정교회 부활절이다. 사할린주 농수산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제빵 및 제과 업체 110곳이 섬 주민들을 위해 총 20만 개의 쿨리치(부활절 빵)를 생산할 예정이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할린의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달걀은 판매처에 입고되는 즉시 매진될 정도로 수요가 매우 높다. 현재 이 양계장의 하루 달걀 생산량은 28만 5천 개에 달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네벨스크항, 식품 공급 위한 컨테이너 운송 확대

새로운 컨테이너 노선이 네벨스크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한다. 섬 현지 업체가 식품 화물 운송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코르사코브항의 부담을 덜고 물품 납품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네벨스크 항을 방문하여 해당 업체가 최신식 화물 인양 장비를 구입하고 컨테이너 운송 역량을 확대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화물 반입 대안 지점을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대륙 상품이 주민과 기업에게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해상 관문의 처리 용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네벨스크항의 올레그 마주르 대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시험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과일, 채소, 유제품 등 유통 기한이 짧은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선박인 '카피탄 린친' 호와 '세르게이 쿠즈네초브' 호를 투입할 계획이며, 24시간 운영 체제를 통해 12시간 내 최대 9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체 철도망을 통한 섬 북부 화물 운송 능력이 주요 강점이다.

사할린주 교통도로부 막심 조골레브 장관은 지난해 코르사코브항이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네벨스크항으로 화물을 우회시켜 물류 부담을 완화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아브로라' 호가 세 차례 운항하며 3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지진후 현재 네벨스크항에는 흠수 5미터 이하의 선박만 입항이 가능한 상태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관련 부서에 항내 준설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사할린국립대, 졸업생 취업률 최고 대학 순위 선정

사할린국립대학교가 '2026년 졸업생 취업률 국가 랭킹'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2023년도 주간부 졸업생들의 졸업 2년 후 취업률과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소득 지표를 반영했다.

사할린국립대는 지역 핵심 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교육 및 교육학: 2위
- 응용 지질학, 광업, 석유가스 및 측량 공학: 2위
- 기술권 안전 및 환경 관리: 4위
- 법학: 4위

또한 사할린국립대는 지구과학, 수학 및 역학, 언어학 및 문학, 서비스 및 관광,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전국 '우수 순위 20' 안에 진입하며 우수한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사할린산 이탄, 3년 만에 한국 수출 재개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독청(로스셀호즈나드조르) 연해주 지역관리국은 최근 사할린주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이탄(토르프) 5,000톤에 대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완료했다. 사할린산 이탄이 한국 수출길에 오른 것은 3년 만이다. 농축산물감독청 관계자는 "러시아는 세계 이탄 수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은 연방국가기관 농업수산물센터 사할린 지부의 정밀 검사를

통해 품질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되었다.

2024년과 2025년 사할린산 이탄은 전량 일본으로만 수출되었으며,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일본행 수출 물량은 총 4건(6,400m³)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새로운 수입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사할린의 섬 이탄은 향후 한국 내 농업용 토양 및 비료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단신

돌린스크 제빵사들, '2026 러시아 최고의 빵' 대회서 수상

사할린주의 돌린스크 제빵소가 '2026 러시아 최고의 빵' 전시회에서 주요 상을 휩쓸며 연방 차원의 인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돌린스크 제빵소'는 국제산업아카데미와 러시아 제빵사 협회가 주관한 제17회 '러시아 최고의 빵 - 2026' 전국 대회에 참가했다.

전문 심사위원단은 사할린 기업의 제품 품질을 높이 평가했다. 돌린스크 제빵소는 '10가지 곡물 빵'으로 대상을, 최고급 밀가루로 만든 '잘리브노이빵'으로 동상(3등)을 각각 수상했다.

현재 돌린스크 제빵소는 제과류를 포함해 총 8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돌린스크뿐만 아니라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마카로브 등 지역에도 빵을 공급하고 있다. 향후 돌린스크 제빵소는 제품군을 더욱 확대하고, 원거리 지역 공급을 위해 냉동 빵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활절 맞이 대규모 장터 개최

4월 11일 토요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규모 부활절 장터가 열린다. 시청 공보실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워크잘나야 거리 71번지 행사장에서 섬 지역 농민들과 대형 농업 기업, 개인 농가가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다양한 레시피로 만든 전통 부활절 빵 '쿨리치'와 '파스하'다. 장터에는 달걀, 유류 및 유제품, 신선 채소, 꿀, 제과류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된다.

또한 사할린 공예가들이 정성껏 만든 독창적인 수공예 선물과 인테리어 소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대표하는 예술단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장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할린주, 4월 17일

'전러시아 취업 박람회' 개최

오는 4월 17일, 사할린주 전역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러시아 취업 박람회 '러시아의 일자리: 기회의 시간' 지역 단계의 일환으로, 사할린 내 20개 장소에서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구인 분야는 건설, 산업, 서비스업, 주택공공서비스, 의료 등이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행사장은 사할린주 주창작센터에 마련된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동포, 살아계실 때 고국으로 모셔야"... 영주귀국 500명 확대 청원

2026년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연풍문에서 약 1시간 동안 사할린동포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는 면담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의 권경석 회장과 이진선, 발라늑 순옥 집행위원, 그리고 KIN(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현태 재외동포담당관을 비롯해 총 2명이 나와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면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를 500명으로 늘려달라'는 청원서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전달된 청원서 내용은 3면에 게재. 편집부 주).

권경석 회장이 직접 청원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담당관에게 뜻을 전했다. 이 청원서에는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단 29명이 한 마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사할린동포법>이 두 번이나 고쳐지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넓어졌지만, 정작

매년 고국으로 돌아오는 인원은 2021년 350명에서 2026년 23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 대상 인원을 500명으로 크게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사할린동포들의 나이가 많은 것을 고려해,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루빨리 고향 땅을 밟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청원서 전달 외에도 동포들이 한국 생활과 영주귀국 정착과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국과 사할린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동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최상구 대표가 건의했다. 또한, 법이 바뀐 이후 사할린 현지 등 동포 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 자녀세대의 복수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얻을 때 러시아식 발음 표기 때문에 생기는 이름 문제, 영주귀국 대상으로 뽑힌 3세들의 국적 판정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임대아파트 재계약과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빠짐없이 전달되었다.

이후 담당관과 참석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동포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상구 대표가 답변을 했고, 한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이진선, 발라늑순옥 위원이 직접 생생하게 설명했다.

동포들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한 김현태 재외동포담당관은 "먼 곳에서 오시게 해 죄송하며, 청원에 대해서는 잘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필요한 문제들은 관련 부처들이 잘 의논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연합회 회장님들이나 KIN을 통해 계속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KIN 제공)

사할린한인연합회, 약 200명 모여 회의 진행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는 지난 4월 5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회의를 열어 사할린한인들의 절박한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만 아니라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마카로브 등지에서 온 회원 200여명이 참가했다.



연합회가 사망한 1세 부모의 2세들의 영주귀국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회의에서 2026년 2월 12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법안 시행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토의했다.

특히 사할린동포법 시행을 맡은 재외동포청 대표단이 올 4월 20일경에 사할린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연합회 측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자녀 (2세) 영주귀국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본사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엄마 150명 대상 대규모 '마마페스트' 이틀간 개최

오는 4월 18일과 1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마페스트'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임신부를 대상으로, 19일 같은 시간대에는 출산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 주최 측 공보실에 따르면, 축제 장소는 아트 공간 '마야크'로 확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선포한 '행복한 모성의 해'의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추진된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의한 국가 프로젝트인 '청년과 아이들', '가족' 프로젝트의 범주 안에서 사할린주 청년정책청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틀간의 축제는 레닌 거리 150번지에서 열리며, 총 150명의 참가자가 함께할 예정이다. 예비 엄마들은 출산 준비, 모유 수유, 영유아 발달 및 돌봄, 주산기 심리학, 산후 회복 등에 관한 강연을 듣게 된다.

전문가들은 참가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북돋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전문의와의 대화를 비롯해 조기 교육, 아동 심리학, 훈육의 경계 설정, 일상 속 자기 돌봄 등을 주제로 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본인과 자녀를 위한 유용한 선물이 증정되며,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경품 추첨 행사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임신부들 간의 교류와 상호 지지를 위한 '비밀 친구' 게임이 진행된다.

주최 측은 '마야크' 내에 애니메이터와 교육 전문가가 상주하는 키즈존과 각종 용품이 구비된 수유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덕분에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마마페스트'의 설립자 율리아 브론니코와는 여성들을 위한 이 같은 편안한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축제가 여성 커뮤니티를 형성해 참가자들이 소통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가족의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 내 엄마와 아이를 위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마페스트' 참가는 무료이며,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Масштабный двухдневный «МамаФест» проведут для 150 мамоче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маФест» прове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8 и 19 апрел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18 апреля с 10:00 до 14:00 для беременных, 19 апреля с 10:00 до 14:00 —

для родивших мамочек. Площадкой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ит арт-резиденция «Мая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рганизатора события.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Год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объявле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 «Семья», инициированных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Двухдневный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Ленина, дом № 150.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ещают принять 150 участниц. Будущие мамы прослушают лекци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родам, грудному вскармливанию, развитию и уходу за малышом, перинатальной психологи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осле родов. Эксперты помогут снизить тревожность и обрести уверенность.

Мамы с детьм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диалогах с врач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раннему развитию, детской психологии, выстраиванию границ и сохранению личных ресурсов в повседневной рутине.

Все участницы получат полезные подарки для себя и детей. Фестиваль завершится большим розыгрышем призов от партнеров. Кроме того, 18 апреля беременные сыграют в игру «Тайный друг» для знакомства и взаимной поддержки.

Организаторы заявили, что организуют в «Маяке» детскую зону с аниматорами и педагогами, пеленальную зону с полным набором средст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мамы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мероприятие без забот о малышах.

Юлия Бронникова, основатель «МамаФеста», подчеркнула потребность женщин в таком комфорт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о ее словам, фестиваль формирует же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где участницы получают общение и взаим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 укрепляет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и развивает локальные сервисы для мам и детей.

Участие в «МамаФесте» бесплатное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сайте.

유즈노사할린스크, 전국 포용성 페스티벌 '사람들 같은 사람들' 동참

유즈노사할린스크가 '자폐증 인식 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전국 페스티벌 '사람들처럼 사람들'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전역 69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의 지원을 받아 사할린 장애인부모 모임 '열린 마음'이 행사를 주관했으며, 주민속창작센터에서 열린 콘서트를 끝으로 페스티벌의 막을 내렸다. 이 소식은 시청 공보실을 통해 전해졌다.

사회복지지원개발부의 율가 소콜로와 부장은 축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열정과 삶에 대한 기쁨, 그리고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이번 포용 콘서트에서는 전문 예술단체와 장애 아동들이 함께 총 13개의 무대를 선보였다.

양상블 '그라치야', '사할린스키에 이스코르키', '두슬리

크', '루스키 테렘', '희망', '나자니', '로마니페'를 비롯해 커버 그룹 '인터벌', 트리오 '믹스'가 무대를 빛냈다. '열린 마음' 단체의 인나 자이체와 대표는 더 많은 일반 교육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페스티벌이 자폐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별한 아이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행사 방문객들은 팔찌, 배지, 엽서 만들기, 점예 연주, 매듭 공예 등 다양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할린 주민속창작센터를 비롯해 '국경 없는 삶', '사할린의 꽃' 등 비영리단체들의 지원으로 운영됐다. 또한 문화부와 사할린모르넨체가스-셀프, 공수부대 스포츠클럽 '제산트니크'가 파트너로 참여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фестивалю инклюзивности «Люди как люд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фестивалю «Люди как люди» в рамках Недели информации об аутизме. Мероприятие охватило 69 регионов. Объединение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организовало фестиваль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его кульминацией стал концер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эр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азвития и реализации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льга Соколова выступил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отметила их энтузиазм, радость жизни и способность с любовью заботиться о своих детях.

В рамках инклюзивного концерт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и дет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сполнили 13 номеров.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или ансамбли «Гр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искорки», «Дуслык», «Русский терем», «Химанг», «Назани», «Романипэ», кавер-группа «Интервал» и трио «Микс».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крытого сердца» Инна Зайцева акцентировала внимание на том, что все больше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проекту. Она пояснила, что фестиваль распространяет знания об аутизме и облегчает интеграцию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в общество.

Гости события посет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браслетов, значков, открыток, а также по игре на джембе и плетению. Их прове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НО «Жизнь без границ», ОЦНТ и АНО «Цветы Сахалина». Партне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АО «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Шельф» и ВСК «Десантник».

Кроме того, прошла выставка рисунков ко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аутизма. В 84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и «Уроки добра», инклюзивные занятия и консультации. Аудитория превысила 1000 человек.

(8면에 계속)

청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500명 확대 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철주야 국민의 안녕과 권익 증진을 위해 국정에 매진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 대통령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할린동포들의 한 맺힌 80년 기다림을 풀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정부와 국회에 의해 개정되어 동반가족의 범위가 <자녀 1인과 그 배우자에서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현재 양문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핵심 내용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이 지난해 11월,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희망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정착 이을 수용할 행정적 영주귀국 대상자는 과거보다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 영주귀국 대상자 350명에서 2022년 270명, 2023년 270명, 2024년 270명, 2025년 23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사할린동포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상자는 확대되었으나 영주귀국 대상자 축소로 실제

들어오는 문턱은 더 높아진 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간 영주귀국 대상자를 최소 5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1세 어르신들의 생존 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3~5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시적이라도 500명 수준의 쿼터를 운영하여 <사후(死後) 귀환>이 아닌 <생전(生前) 귀환>을 실현해 주십시오.

- 자녀 전원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은 대상자 확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이 개정되어 기대가 컸던 만큼, 좁은 문 앞에서 좌절하는 동포들의 고통은 더욱 큼니다.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그분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연간 500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것이 80년 전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사할린동포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고국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3.02.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권경석 외 전국회장단(29명) 일동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알렉산드라

관리번호	95238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알렉산드라	한자	
이명	없음	성별	여
생년월일	1885-02-28	사망년월일	1918-09-16
본적	외국 러시아 연해주 추풍 영안평		

공훈록

본적은 노령(露嶺) 연해주(沿海州) 추풍(秋風) 영안평(永安坪)이다. 1914년 말부터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러시아 우랄 지방 베르스크 대공장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진력하였다. 1917년 초 러시아사회민주당에 가담하여 그해 베르스크 대공장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나자구(羅子溝) 무관학교 생도 출신인 이들 조선인 노동자들로 우랄노동자동맹을 조직하였다.

1918년 1월 하바로프스크에서 극동인민위원회 외교인민위원이 되어 러시아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이동휘(李東輝)의 석방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이동휘 등과 함께 반일반제(反日反帝)의 사회주의 노선을 강령으로 채택한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정당인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창립하여 산하 출판사인 보문사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일본군이 연해주에 출병했을 때 일본군 병사들을 상대로 한 반제반전(反帝反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일본군 병사들에게 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 알렉산드라는 한인(韓人)들을 모집 한인

사회당 적위군을 조직하여 일본군 및 백위군과 전투를 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9월 하바로프스크가 일본군과 백위군에 함락되었을 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18-1922, 마트베이 김, 1979를 번역) 111~119면
-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туманган пограничная река 김 블라지미르, 1994를 번역) 62~82면
- 성재 이동휘 일대기(반병률, 1998) 145~157면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90~91면
- 蘇聯韓族史(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김승화, 1965를 번역) 86~90면
- 獨立新聞(1920. 4. 17·4. 20·4. 22)
- 韓人新報(1917. 11. 17)
-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1927) 46~49면
- 김 알렉산드라의 호소문(1918. 7, 하바로프스크 빨치산문서보관소)
- 개벽 제57호(1925. 3. 1) 25~32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화태, 가라후토, 사할린

김이정

(전호의 계속)

석구는 말을 잊지 못했다. 시커먼 얼굴에 이마엔 불을 켜는 등을 매단채 달려온 석구는 귀신이라도 마주친 얼굴이었다. 그러나 더 놀란 것은 나였다. 석구는 이제 그의 이름이 돼버린 준구라는 이름뿐 아니라 외모도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시커먼 얼굴에 빼와 근육만 단단히 엉겨 붙어 몸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다.

“옥아!”

그가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무릎을 무지르며 주저앉았다. 화태섬에서도 북쪽인 기타오자와까지 오는 사십 일 동안 온몸을 팽팽하게 채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면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니가 당당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겁이 없는 줄은 정말 몰랐데이. 도대체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여길 올 생각을 다 하노.”

제정신을 차린 석구가 주저앉은 나를 안으며 울먹였다. 떠날 때보다 몸이 반으로 준 그가 석탄가루가 잔뜩 묻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기어 이 눈물을 흘렸다. 검은 눈물이 그의 얼굴에 골을 만들며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화태, 아니 가라후토의 봄은 너무 짧았다. 화태에 오니 화태가 아니라 가라후토라고 했다.

“원주민들 말이라하는데 자작나무 섬이라는 뜻이란다. 발음이 똑 일본말 같다.”

석구는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다. 그러나 가라후토의 봄은 짧기만 했다. 4월에도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 곳이 가라후토였다. 5월도 중순 쯤 되어야 겨우 눈이 녹는 곳, 한 달 정도 머문 봄이 바로 여름으로 접어들고 9월이면 이미 겨울이 시작되는 곳. 일년의 절반 이상 길고 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이곳에서 봄만 되면 나는 해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토록 간절했던 봄이 너무나 짧게 지나가 버린 까닭이다. 준구, 아니 석구와의 봄날이 가라후토의 봄처럼 짧았기 때문이다.

“니가 여까지 오다니, 아무래도 이게 꿈이지 싶다. 아니 꿈이라도 제발 깨지 않는 꿈이라면 좋겠다.”

석구는 탄차를 타고 사킬로나 가는 막장에서 탄을 캔다고 했다. 캄캄한 굴속을 기어서 때론 누워서 천장의 석탄을 파내는 그의 입은 늘 석탄가루가 입안에 가득했다. 잦은 기침 끝에 습관적으로 뱀는 침은 먹물처럼 검었다. 석구는 일년 사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해 버렸다. 석탄을 캐는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영하 사십도의 날씨에 손가락이 얼어붙었다가 녹기 반복하여 양쪽 모두 검지와 중指的 손톱이 빠진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곡괭이질과 호미질로, 때로는 맨손으로 석탄을 파내느라 온몸은 상처투성이였다. 팔꿈치와 발뒤꿈치는 피가 났다가 수십번 엉겨 붙어 코끼리 살처럼 굳어버렸다.

잠시라도 쉬면 일본인 감시원의 채찍이 날아온다고 했다. 하루는 그의 등에 사선으로 줄이 짝 진채 돌아왔다. 두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작업을 쪼매 일찍 끝냈다고 몸에 물을 뿌리고 고무호스로 맞았다. 우린 중만도 못한 노예다, 노예.”

그날 밤, 나는 약도 바르지 못한 등의 채찍 자국을 혀로 가만가만 쓸어내렸다. 내 몸의 모든 온기를 끌어모아 그의 등에 연고처럼 펴 발랐다.

“여서 일하다 그냥 죽어버리도 상관없다

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들이 나 형님 생각도 안 날 만큼, 아니 옥이 나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 싶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낸건데 이렇게 니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나 이제 죽고 싶지 않다. 옥아, 우리 꼭 살아서 고향으로 가자. 니가 오이 꼭 살아서 돌아오고 싶다. 옥아, 꼭 살아남자!”

석구는 굴착이라도 하듯 내 몸을 파고 들었다.

9월이 되자 간간이 눈이 오기 시작해서 곧 발목까지 푹푹 빠졌다. 함숙소에서 탄광까지 길을 내는 것도 조선 사람들 몫이었다. 내 고향은 눈이 드문 곳이어서 처음엔 그저 눈이 신기했다. 어떻게 하늘에서 목화송이를 가마니째 쏟아붓듯이 떨어지는 것인지, 나는 눈이 올 때마다 하늘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그러나 추위는 견디기 어려웠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고 피부가 얇은 나는 첫 겨울에 바로 볼과 귀와 손발이 얼어버렸다. 변변한 옷도 없이 무명옷을 꺼입고 어찌다 생긴 동물가죽을 뒤집어쓰고도 추위는 견디기 어려웠다. 무릎까지 쌓이는 눈길을 나는 석구가 만들어준 설피를 신고 다녔다. 눈 녹인 물로 설피를 하고 나면 손등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피가 났다. 고향의 겨울은 가라후토의 봄보다 따뜻했다.

일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가을부터 석구의 회사에서 일을 했다. 석탄회사는 월급을 회사에 저금했다가 집에 돌아갈 때 준다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석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채권이라는 종이짜귀리를 받기도 했다고 들었다. 나는 만식 엄마와 같이 컨베이어벨트로 나오는 석탄에서 돌을 골라냈다.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는 일은 쉽지 않아 손톱이 빠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석구와 같이 있는 것으로 통증은 쉽게 가라앉았다.

일년이 지나자 분위기는 더 살벌해졌다. 언제부턴가 석탄의 재고가 쌓이고 있었다. 캐는 대로 바로바로 기차에 실리던 석탄이 산처럼 쌓인 채 며칠째 그대로였다. 전쟁에서 일본이 점점 밀리고 있다는 소문이 은밀히 돌아다녔다. 조선에서 온 일꾼들은 일본인 관리들의 눈을 피해 전황을 나눴다. 4년이 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탄광에 매여 곡괭이질만 계속 했다. 언제 보내주느냐 물으면 채찍과 무자비한 폭력이 돌아왔다.

여름은 가라후토가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다. 아기 손바닥만한 연 돛빛 자작나무 잎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제멋대로 나부꼈고, 습기 없고 시원한 기온은 쾌적했다. 석탄으로 황폐해진 검은 흙에 심은 감자는 새알만 했고 옥수수도 시들시들해 여전히 배는 고팠지만 그래도 그와 마주 보고 있는 순간은 허기를 잊을 수 있었다.

가라후토의 봄은 너무 짧게 끝이 났다. 그해 여름, 석구가 다시 끌려갔다. 팔월 스무셋새 날, 아침에 나간 석구가 돌아오지 않았다. 잔업을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나는 저녁을 먹으려고 마른 고사리를 꺼내고 있었다. 고사리가 다 불기도 전에 만식 엄마가 달려왔다.

“야야 석구네야, 니 신랑이랑 우리 만식 아버지랑 다들 아까 기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리갔다 안카나. 여기 인부들 절반이나 끌고 갔다 카더라. 도대체 이기 무슨 일이고!”

(다음호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тец каждый день слушал корейское радио и рыдал, услышав голоса отца и братишки»

Проект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голос забытых предков» – встреча с семьёй Пак Хон Юна



В августе 2025 года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запустила проект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голос забытых предков». Это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редакции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в газете 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ЮСМООК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олжны были публиковаться переводы пис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книг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журналиста Чан Мин Гу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1977 год).

В конце года раздался звонок: одна пожилая женщина из Холмска в одном из номеров газеты увидела письмо своего мужа. В силу разных причин мы смогли встретиться лишь в конце марта. Материал об этой встрече на корейском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газете в прошлом номере. Сегодня предлагаем вниманию читателей русскую версию.

Автор отправился в Холмск вместе с Пак Вениамином –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ЮСМООК, депутатом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ма нас уже ждала бабушка Лида (И Чон Дя), её внучка Юлия. Позже подошла и младшая дочь Тамара.

Бабушка Лида всю жизнь выписывает нашу газету.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стала читать газету, увидела материал под рубрикой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и начала читать письмо. Уже на первой строчке «Почему здесь имя младшего деверя?» – удивилась она. А затем увидела имя своего покойного мужа – Пак Хон Юна.

Судьба, которую не придумаешь

По документам бабушка И Чон Дя – 1944 года рождения,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а родилась в 1941 году. Об этом она узнала только в 32 года, когда встретилась с родной старшей сестрой. Оказалось, что её удочерили в трёхлетнем возрасте. Приёмные родители, чтобы скрыть это, переезжали с места на место по всему Сахалину: жили и в городах, и в лесхозе, и в посёлках, где не было школ.

Приёмная мать не могла иметь детей. Помимо И Чон Дя они усыновили ещё одного ребёнка. Мать хорошо одевала своих приёмных детей, но не смогла подарить им теплоту материнской любви. Младший брат стал для И Чон Дя самым родным человеком. Он всегда старается заботиться о своей старшей сестре, его имя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кончив три класса, два года не ходила в школу, потому что школы просто не было. В Поронайске вновь стала учиться, но, когда заканчивался учебный год, родители опять решили переехать. Однако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настоял, чтобы девочка закончила четвёртый класс, разрешил жить в общежитии при школе. Потом была русская школа в одном из поселков, где из-за незнания языка пошли «двойки». Итог – осталась на второй год...

Она была ещё школьницей, а к ним домой уже приходили сватать её. Претендентов в женихи было много. Но она не знала этого. Её будущий муж ждал два года, когда она окончит семилетку. Их сосватали, как было принято в те времена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Будущего мужа она не знала... Он был намного старше её. По документам – на 16 лет старше. Она родила ему четверых детей: сына и трёх дочерей. Муж всё делал для семьи. Пообещал найти её родных, узнать правду о своей семье. Он сдержал своё обещание. Когда переехали в Холмск, она встретила со своей старшей (второй) сестрой.

Оказалось, что родной отец был шахтёром, жизнь которого оборвалась после аварии на шахте. Перед смертью он просил отдать своих трёх дочерей в хорошие семьи. Его жена была японкой, немой... Вторую и младшую дочь отдали. Бабушка Лида – младшая дочь. Мама-японка позже уехала в Японию со старшей дочерью. Говорят, она до последнего пыталась найти и забрать с собой младшую дочь...

Пак Хон Юн: побег из дома и тоска по родине

Муж бабушки – Пак Хон Юн (1928 г.р.) – не был насильственно завезён на Сахалин. В 9 лет он потерял мать. Отец женился во второй раз, мачеха не пришлась по душе – и в 16 лет он ушёл из дома, решив искать дядю на Сахалине. Когда на перекладных добрался на Сахалин, оказалось, что дядя обзавёлся семьёй, и, конечно, не мог сильно помогать племяннику. С чьей-то помощью Пак Хон Юн выучился на парикмахера – это стало его делом на всю жизнь. Стриг мужчин, был очень хорошим мастером, занимал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а областных конкурсах.

Женился поздно – в 32 года, потому что думал, что вернётся домой и женится. Но годы шли, а домой возвратиться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Он рано получил со-

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 думал, что так быстрее получится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Домашним постоянно говорил: «Вернёмся в Корею». Каждый день слушал корейское радио KBS, ждал вестей.

Дочь Тамара вспоминает:

«Наш папа был очень красивым. Ради семьи готов был на всё. Благодаря ему мы получили вот эту квартиру – он ходил в мэрию, добивался. Никогда не повышал голос на маму, при нас родители никогда не ссорились. Спокойный человек, но что-то в нём такое было. Если что говорил, все слушались сразу... Он велел мне учиться парикмахерскому делу: "Это тебя прокормит". Так и вышло – в лихие 90-е это ремесло кормило нашу семью».

Когда в передаче KBS прозвучали голоса отца и младшего брата, он плакал. Когда был повтор передачи, он смог записать это на бобинный магнитофон. А потом слушал эту запись вновь и вновь.

Он ждал писем с родины. Они не доходили. Приходили известия, что письма отправлены, – но их не было...

Пак Хон Юн умер в 1989 году в возрасте 61 года от болезни сердца. Жена убеждена: от тоски по родине, потому что не получал вестей.

Новая боль

Коронавирус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 унесли жизни сына и двух дочерей бабушки Лиды в 2020, 2021 и 2022 годах. Это незаживающая рана семьи. Дочь Тамара, которая рассказала нам эту историю, сама едва пережила ту пору – последствия ковида ощущает до сих пор.

В этот день в Холмске мы чувствовали тепло и ценность семьи. Смеялись, утирали украдкой слёзы, рассматривали семейные фотографии. Мы ещё раз поняли: наш проект нужен, чтобы помнить прошлое и беречь память для потомков. Он нужен живым людям, чтобы голоса их родных не пропали.

Виктория Бя

От редакции:

Проект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голос забытых предков»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убликацию переводов писем в газете, размещение материалов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издание отдельной книги. Комментарии к письмам готовит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Подробнее о проекте можно прочесть в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т 1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Перевод письма Пак Хон Юна опубликован 7 ноября 2025 г.

В парке Хваран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жертв трагедии апреля 1920 года в Приморье



5 апреля в парке Хваран (г. А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 монумента «Несгибаемое мужество героев корё-сарам»,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амяти жертв «4월 참변» (саволь чамбён) —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апреля 1920 года в Приморь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Обществом поддержки корё-сарам «Номо» и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брало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ё-сарам 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Символичность места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оценить. Монумент,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 одном из общественных парков города, стал точкой, где история корё-сарам вписана в соврем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ореи. В этот день парк Хваран был наполнен цветением вишни — живым напоминанием о весне, которая соседствовала с памятью о трагедии.

Программа началась с лекции профессора Суwon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ак Хвана, который рассказал о событиях в Синханчхоне — одном из центров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Приморь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трагедии апреля 1920 года, ког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кар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корейские поселения и погибли сотни людей.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а глава АКРК Жанна Тен. 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общественные и мемориа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учёных 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изучением и сохранением вклада корё-сарам в борьб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Для нас это означает нечто большее — превращение памяти в ресурс. Ресурс для осмысления своей идентичности, для внутреннего единства, для способности говорить о себе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как о части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 траурной речью выступила Светлана Югай (потомок Ма Чунгера), подчеркнувшая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семейной памяти и передачи её 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Особое место в программе занял хансик (한식) — традиционный день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В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й Корее эта традиция практически утратила своё значен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днако для корё-сарам она сохраняет глубокий смысл.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 в том числе в условиях депортации и жизн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именно хансик оставался днём, когда семьи собирались,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редков. В Ансане эта традиция была воспроизведена как важная часть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и 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участники разделили поминальную трапезу, продолжив общение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0 волонтеров АКРК, обеспечивших подготовку и проведение церемонии.

Проведение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е отражает растущее внимание к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и их вкладу в борьбу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 также стремление сам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охранить и осмыслить своё место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и обществе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траны.

(Пресс-релиз АКРК)

У LG Electronics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рекордные продажи

Операционная прибыль компании LG Electronics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март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а 1 трлн 673 млрд вон (1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32,9%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дажи выросли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4,4%, составив 23 трлн 733 млрд вон (15 млрд 76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Данные о чистой прибыли не опубликованы.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РК находит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РК находит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Ли Чжэ Мё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лидера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состоявшейся 7 апреля в Сеул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вал политиков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кризиса, вызванного «внешними факторами, неподвластными нашему контролю».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планировало помощь населению, призванную смягчить последствия кризис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который вызвал рост цен на топливо. Президент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мощи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е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из основного бюджета, а за счёт налоговых поступл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распределить денежную помощь среди 70% наименее обеспеченн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оппозиционную партию Сила народа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реализации выплат в рамках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реформы. Во встреч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Чон Чхон Рэ и глава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Хан Бён До, председатель осно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Чан Дон Хёк и глава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Сон Он Сок,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Мин Сок и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ан Хун Си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добрило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6 апреля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К одобрил предложение о внесении поправок в ряд статей Конституции страны.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187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и пяти малых партий совместно предложи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ужесточающий требования для объявл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включающий в Конституцию упоминания о духе дву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движений. Главн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не поддержала предложение. В течение 20 дней после одобр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оправки должны быть утверждены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и опубликованы для всенародного ознакомления.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за них должно проголос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ри этом необходимо набрать как минимум две трети голосов. Если вся процедура завершится до 10 ма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референдум может прой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местными выборами 3 июня.

Кан Хун Сик посетит Казахстан, Оман и Саудовскую Аравию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ан Хун Сик посетит Казахстан, Оман и Саудовскую Аравию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способов обеспечения поставок сырой нефти и нефти в условия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Наиболее важной задач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вля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стабильных поставок товар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кольку РК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зависит от поставок сырья с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 заявил Кан Хун Сик журналистам. Он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еспече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поставок до пол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изиса. Кан Хун Сика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в поездк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а также отечественн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РК и КНР сотрудничают в защит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аможенных органов РК и Китая провели 6 апреля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защите пра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Оно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для уточнения положений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данной сфере, подписанного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южн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ого саммита.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информацией о систем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мерах по борьбе с контрафактной продукцией, принятых в 2025 году, утвердили пла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2026–2027 годы.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о рисках нарушений пра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Сеул и Пекин договорились назначить специальных координаторов и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обмениваться результатами проверок на этапе таможенного оформления.

BTS с песней Swim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в Billboard Hot 100

Swim – заглавная песня из альбома Arirang группы BTS - заняла на этой неделе втор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синглов Hot 100, опустившись на одну позицию после лидерств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и этом цифровые продажи Swim сохраняют первое место втор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Объем скачиваний составил 67 тысяч копий, что на 29%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й. Первое место в Hot 100 заняла кантри-композиция Эллы Лэнгли Choosin' Texas, которая возглавляла чарт ещё до релиза Swim. Hot 100 - это еженедельный рейтинг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песен в США, который составляется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о стриминге, радиоротациях и продажах.

RKI

Реализация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освоению СМП зависит о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Ф

Реализация стратеги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освоению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о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Об этом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м телеканале KBS заявил известный эксперт по РФ, член Комитета советников по политике при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четный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Хон Ван Сок,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роль Москвы в данном проекте «не просто важна, а носит абсолютный характер». Эксперт также указал на важность РФ в других сферах, призвав Сеул взять курс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нять значение России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осознания того, какую роль сам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играет для Кореи. «История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злет и падение цивилизаций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ы с торговыми маршрутами. К сожалению,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долгое время находился в стороне от таких ключевых путей - на периферии, на краю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эксперт.

Ситуация, по его оценке, меняется.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СМП) открывает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ть частью новой оси мировой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Фактически Корея получает шанс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один из узлов нового глобального маршрута», - подчеркнул профессор, добавив, что именно этим объясняется внима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Чжэ Мёна к арктической повестке. Отметим, что развити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МП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приоритетн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 гос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Однако, по словам профессора, ключевым условием успеха остается Россия. «Около 5600 километров маршрута проходят через российскую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зону. Без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оссией реализация этой стратегии невозможна... Роль России тут не просто важна, а носит абсолютный характер», - отметил Хон Ван Сок. По его словам, если Сеул рас-

считывает занять позиции в «арктическую эпоху», ему придется выстраива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Москвой.

Экспер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значение России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олько арктической логистикой. По его словам, в Сеуле необходимо отказаться от упрощен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России через призму жесткого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я Западу.

«До сих пор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реобладал подход, при котором Запад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безусловное добро, а Россия - как зло. Такой взгляд искажает понимание реальности», - отметил профессор, добавив, чт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необходимо более взвеш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Россия, по его оценке, имеет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ключевых значений.

Прежде всего речь идет об энергетике. Росс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крупный и стабильный поставщик ресурсов. Кроме того, она может выступ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рынком, снижая зависим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от Китая.

Отдельно эксперт выделил транспортное измерение - возможность соедин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ртов, таких как Пусан и Мокпхо, с евразий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етью, что формирует потенциал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железн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остается 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я, по словам профессора, обладает значительным объемом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разработок, которые могут стать источником для новых отраслей ро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Кроме того, Москва представляет интерес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база, способная частично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само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в Юж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как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поставщиков морепродукт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литик призвал исключить российскую нефть из санкц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литик Хан Чжун Хо, участвующий в праймериз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на пост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выступил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добиваться исключ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из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на фоне обострения глобальн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Как сообщило 5 апреля издание OhmyNews, политик озвучил свою позицию на фоне растущих опасений по поводу перебоев с поставками нефти, вызванных напряженностью вокруг Ормузского пролива.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по его слова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олжна действовать более гибко и прагматично в вопросах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Хан Чжун Хо заявил, что Сеулу следу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е ключевое положение в глобальных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в качестве инструмента давления в переговорах с Вашингтоно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серьезным вызовом в виде глобальн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 отметил он, подчеркну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более актив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литик также подверг критике действ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заявив, что «она про-

извольно меняет критерии санкций на российскую нефть, навязывая союзника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здержки».

По его мнению, «следу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заменимую роль Южной Кореи в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как рычаг и добиться исключения из санкций на импорт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реализуя гибкую и прагмати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тране необходимо срочно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источники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и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поставок,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Заявление прозвучало на фоне дискуссий в Южной Кореи о путях обеспеч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РК указывал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сширения импорта из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тогда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нимает более осторожную позицию в вопросе возможных поставок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ссылаясь на существующие ограничения, включая проблемы с логистикой и расчет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Сеуле прошли массовые демонстрации в связи с годовщиной импичмента Юн Сок Ёля

В субботу 4 апреля исполнился ровно год с момента, когд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Южной Кореи утвердил импичмент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ле его попытки ввести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ночь с 3 на 4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Позднее, в феврале 2026 года, суд приговорил бывшего главу государства к пожизненному заключению, признав его виновным в мятеже и попытке узурпации власти - в том числе за ввод войск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арламент).

Годовщина импичмента прошла на фоне массовых акций в Сеуле, которые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охраняющийся политический раскол в стране. В центре столицы, у зда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требовавших «по-

кончить с мятежом» и провести глубокие социальные реформы.

Параллельно в район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шли акц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реформы прокуратуры -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Юн ранее занимал пост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Не остались в стороне и сторонники экс-президента. Почти три тысячи его соратников вышли на митинги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города. Участники акций требовали е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называли импичмент «мошеническим» и утверждали, что введени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было оправданным. На митингах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флаги Южной Кореи, США и в отдельных случаях Израил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ременных отметили на Сахалине

Ток-шоу о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и материнстве,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мам и ярмарку изделий ручной работы провели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чест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ня беременных,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7 апреля. Среди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был 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адал успешным женщинам и многодетным мамам вопрос: рождение детей помогало им 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или стало препятствием? Героини единогласно выбрали первый вариант.

— Если не рожать детей, для чего тогда жить? Зачем 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и делать бизнес, если некому это передать? Воспитывать детей, прививать им семейные традиции и ценности, передавать знания и опыт, чтобы сыновья и дочери становились хорошими людьми и настоящи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которые приносят пользу обществу — это и есть смысл нашей жизн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частницы ток-шоу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им и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историями успеха. Так, мама четырех сыновей Татьяна Сулакова первого родил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о это не помешало ей сдать выпускные экзамены и защитить диплом. А почти в 40 лет она запустила совсем не женский бизнес — ее компания занимае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ом отдело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я всю жизнь учусь, расту, занимаюсь саморазвитием. Могу назвать своих сыновей и прекрасного супруга крыльям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я могу все, — поделилась Татьяна.

Владелица сети кофеен, мама троих детей и молодая бабушка Елена Свиридова призналась, что дети для нее — главная мотивация.

— Моя дочь родила рано, и я горжусь, что она строит свою семью, а мы всячески ее поддерживаем. Я ни дня не сидела в декрете и сразу после родов выходила на работу. И мой бизнес рождался и рос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 поделилась Елена.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й год действует губернато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призванная поддержать женщин и дать им уверенность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Проект стал примером прак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задачи по повышению рождаемости,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всеми регионам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зультат программы говорит сам за себя — с 2025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наметилась тенденция на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 Как только встали на учет на 12-й неделе, ко мне прикрепили проводника счастья. Это большая поддержка не только в плане здоровья, но и моральная. Могу обратиться по разным вопросам — от записи к врачу до назначения выплат. Раньше сомнения и страхи были по поводу родов. Но прошла курсы для будущих мам и успокоилась, — рассказала южносахалинка Наталья Шургина.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включает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ер поддержки — от лечения бесплодия до новых ценностей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Сахалинки и курильчанк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ЭКО. В помощь новоиспеченным родителям предусмотрели компенсацию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услуги няни.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открыли группы, в которых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малыша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и посвятить время себе. Более 260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недрили корпоративный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стандарт. Работодатели создают таки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женщины могли совмещать карьерный рост и заботу о детях.

Новыми методиками овладевают островные травматологи-ортопеды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внедряется методика частичного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я коленного сустава. Первые три операции прошли 3 апреля в травматолого-ортопедическом отделени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ндрея Зыкина — кандидата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ением травматологии-ортопедии № 2 Приволжск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Частичная замена коленного сустава — методика, которая может быть применена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поражение охватило только одну часть сустава. Специалисты учреждения уже давно овладели методикой тотальной замены коленного сустава. Частичное протезирование представляло сложности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 таком виде имплантации у специалисто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авить здоровую область, заменить н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компонент только один из мыщелков. Первыми технологией овладели врачи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но часть пациентов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оперироваться в федеральных центрах страны.

— Недавно нам поступили новые эндопротезы для тазобедренного и коленного суставов. Сейчас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частичной замены. Все работы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кластера —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для лечения островных пациентов своими силами, без отправки на материк,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травматолого-ортопед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м. Ф.С. Анкудинова И Сун Син.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е суставов, как правило, требуется пациентам после 60 лет. У большинства наблюдается полное разрушение сустава, частичное — существенно реже. Отделение травматологии-ортопедии № 2 Приволжск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таком виде операций, поэтому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был приглашен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Андрей Зыкин.

—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 Анкудинова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пециалисты готовы выполнять такие операции. Сегодня мы отработаем методику вместе, а дальше они уж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могут проводить вмешательства, — объяснил Андрей Зыкин.

Помимо частичной замены сустава специалисты также выполняют два тотальных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я и артроскопию мениска. Развит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которую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ны о Сахалине» и «Северный ветер»: на Сахалине реализуют проекты-победит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Долинский и Макаров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 заключили контракты на проведение строительног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ъектов, ставших победител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Он прошел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ключенного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нацпроект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В Долинск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ам по созданию сквера имени А.П. Чехова «Сны о Сахалине». Обновлен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оявление фонтана, современной детской игровой площадки и уютных зон отдыха, оснащенных навесами и беседками. Кроме того,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ят сцену и амфитеатр для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площадку для обмена книгами, а также установят скульптуру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Дополнением станут высаженные деревья вишни и сакуры.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мимо сквера, в этом году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появится скейтпарк в парке Дружбы,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т набережная вдоль реки Излучная у нового жилищ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 улице Хабаровская. Эти два объекта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рейтинговом голосовании.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 нас благоустроили площадь Ленина. Теперь мы часто гуляем тут с ребенком, так как рядом с домом теперь есть уютное и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для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когда благоустроят набережную. Очень хочется, чтобы в городе появилось такое место, где можно в тишине посмотреть на воду, отдохнуть наедине с природой. В целом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как твой город на глазах меняет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Долинска Алена Королева.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должится обустройство аллеи «Северный ветер» —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объединенной в единое прогулоч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 игровой площадкой, озеленением и малыми архитектурными формами. В проекте второго этап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акцент сделан н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малой площади по улице Хабаровская и сквера Адмирала Макарова. Здесь появятся новые торговые объекты,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ая крытая площадь, детское кафе и игровая зона в эко-стил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т развит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 создаду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дорожку для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и скейтеров.

Кроме тог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по итогам прошедше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сквере адмирала Макарова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проект «Горки». Муницип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уже разыгр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ётся закупка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летом начнется его установка. Новые горки будут круглогидичными,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у детей появится ещё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активных игр и весёлого досуга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да.

—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являют высокую активность в вопроса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 благодаря их выбору в регионе ежегодно преобразуются десятк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Хорошим подспорьем ста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малых города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беда в Конкурсе позволяет не только обнови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но и создать новые — современные, безопасные и удобные для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комплексному подходу,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тражают интересы и потребност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Напомним, з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19 проектов бла-

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1 — в 2022 году, 4 — в 2023, а в 2024 году победу одержали сразу 12 проектов из Долинска, Холмска,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Макар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урильска, Южно-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Кроме того, с 2021 год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участвует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За это время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свыше 20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йдет с 21 апреля по 12 июн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Уюн парке» перешло в активную фазу

В новом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Уюн парк» приступили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временн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Работы идут полным ходом, уже завершены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этапы и залит фундамент. Новый объект обеспечит места для дошколят и облегчит жизнь молодым семьям района.

Детский сад рассчитан на 290 мест и сможет принять детей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Он станет первым дошкольным учреждением в этом районе. Вопрос появления сада жители поднимали не раз,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микрорайону.

— Мы посетили «Уюн парк» и побывали на стройк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Запуск этого объекта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7 году. Жители не раз обращались ко мне с самыми разными вопросами: о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территории до недостатка освещения на улицах и нехватки мес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Это естеств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для нов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когда его только начинают обживать. Все жалобы, которые поступают, подтверждаются, и сейчас мы делаем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чтобы исправить ситуацию. В целом район развивается хорошо и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адика сейчас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микрорайон станет по-настоящему комфортным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активно — подготовлены фундаментные плиты, ведется армирование стен, идет монтаж опалубки. До август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коробку здания, после чего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наружным сетям, установке окон и системе отопления — его обещают запустить до конца года. Затем начнется отделка помещений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В здании разместятся 12 групп для детей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каждая получит свою изолированную «ячейку» с отдельным входом, просторной раздевалкой, комнатами для игр и сна, буфетной зоной и туалетными комнатами. В новом детском саду оборудуют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современные игровые зоны, музыкальный и спортивный залы, помещения для кружков и прачечную. Планиру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ить большую территорию с газонами и площадками для прогулок и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Объект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приспособлен для нужд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 Продолжаем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социаль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 районах нашего города, особенно в новых, куда переезжают молодые семьи. Такие объекты держим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Стройка детского сада идет по графику, сказа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Кроме того, подключаемся к решению и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жителей. Например, в част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 освещения. Здесь уже работает придомовое освещение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домов, работы по подключению остальных корпусов вместе с застройщиком планируем завершить до середины апреля,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максимальный комфорт для жителей.

Как отмечают жители, сейчас им приходится отвозить детей в центр города, что не очень удобно и занимает много времен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вызвало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и поддержку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 Детский сад зде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нужен. В микрорайон переезжает много молодых семей, большинство снимает жилье.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детсад был рядом — тогда не придется ездить через весь город,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ей Тюкпеев, житель микрорайона.

Алексей Васянин выбрал этот район именно из-за уединенной атмосферы и мест для прогулок.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ейчас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семей не хватает.

— Детский сад н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вокруг — в нескольких километрах есть только один садик, и для растущего микрорайона этого явно недостаточно. Я выбрал этот район, потому что мне ближе тишина и спокойствие, нет городской суеты. Здесь можно прогуляться по тропе здоровья к водопаду Уюн, подняться по тропинкам на гору Пушкинскую или пик Чехова. Сейчас здесь очень тихо и уютно, но без детского сада жить с детьми сложно. Мы все ждем, когда появится полноц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добавил Алексей.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поддержал и еще одну просьб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обустроить дорожку, которая соединит дома с магазином и останов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чтобы жители могли безопасно и удоб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по район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국립국악원 '연희 판판', 사할린 동포 가슴에 "하라쇼!"

2026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 무용단 '연희 판판' '흥으로 잇는 세상', 사할린 동포 가슴으로 문긋, 연희판, 판긋 첫 관람한 동포들, '하라쇼'



김포 지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80여 명의 입에서 일제히 "하라쇼(좋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4일 토요일,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진 연희 상설공연 '연희 판판'의 우측 객석은 유난히 활기찼다. 야외 공연의 해방감과 팔찌형 티켓에 생경해하면서도, 마치 소풍을 나온 아이들처럼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포 지역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로, 김포통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회 최정순 회장과 3단지 영주귀국사할린동포회 채신자 회장의 인솔 아래 고국 땅을 밟은 후 처음으로 연희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관객들은 '비나리'에 눈과 귀를 집중했고, 역동적인 '사자춤'에 눈을 크게 떴다. 현란한 '설장구'에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으며, '비나'와 '죽방울 놀이'를 볼 때는 러시아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다며 서로 귀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줄타기와 북놀이, 장구춤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하라쇼! 하라쇼!"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무대인 '판긋'이 절정에 달하자 한 동포는 "나도 같이 나가서 춤을 추면 안 되겠느냐"며 흥을 감추지 못했고,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곳곳에서 가장 먼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다.

이번 방문을 이끈 '김포통진읍 사할린 동포회' 최정순(79세) 회장은 "화장한 봄날, 국립국악원을 직접 방문해 이런 뜻깊은 공연을 보게 해주신 국립국악원과 정성껏 초청해주신 유지숙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진절하게 안내를 도와준 국악신문과 아리랑연합회 측에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다음 사할린아리랑축제에서도 현지 한인들과 러시아 사람들에 이렇게 신나게 노는 전통놀이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3년 전 영주귀국한 '김포3단지 사할린동포회' 채신자(69세) 회장은 "너무 감동적이다. 생전 처음 보는 공연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분명 보셨을 그 모습 아니겠느냐"며 끝내 말을 흐렸다. 또 다른 동포는 "귀국 선물로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오늘 오지 못한 이웃들에게 실컷 사랑해야겠다. 줄타기, 사자춤 너무 신났다. 하라쇼!"라고 소

감을 전했다.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은 "국악신문에서 매년 전국 국악공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국립국악원에서 버스까지 보내주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주최 측에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전 모스크바한인협회 박노영(90세) 회장은 "우리 부모들이 사할린에 강제동원으로 끌려갈 때도 '장구'와 '북'은 배에 싣고 갔다. 잔치날에 북을 치며 우리 민요를 부르면서 설움을 달랬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공연을 처음 보았다.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동영상도 찍었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자식들과 친구들에게 보낼려고 한다"고 하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이번 김포 통진읍과 3단지 지역 사할린 동포 초청은 앞서 진행된 파주 및 양주 지역 동포 초청에 이어,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의 각별한 관심과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한편, 국악신문은 그동안 사할린 동포들과 국악단체를 연결하며, 우리 전통 예술을 통한 동포 사회의 정서적 유대감 회복에 앞장서 왔다. 동포들이 고국에서 국악의 멋과 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가교구실을 해온 것이다. 특히 이번 국립국악원 초청 행사처럼 지역별 동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결을 통해, 우리 국악이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고향의 소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미양 대표는 "국악은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공통의 언어와 같다"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국악을 통해 고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국악단체 간 협력 모델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포들은 우리 전통 예술을 단순한 관람의 대상이 아닌,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고국과 소통하는 생생한 삶의 활력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어 기 대표는 "지역 단위 국악 공연이나 축제 기획 시 동포들과 함께하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가 국악신문으로 연락을 주면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악신문 제공)

전 재산 조국에 바친 최재형 106주기 추모식... 각계인사 참여

문영숙 기념사업회 이사장 "본받아야 할 인물, 삶 전체가 롤모델" 정석현 기념사업회 후원회장 "전 재산 바친 결단, 오늘에도 깊은 울림" 최재형상 수상자들 "나눔의 실천 이어가겠다" ... 각계 '현대판 폐치카' 조명

전 재산을 조국에 바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일인 4월 7일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는 선생을 기리는 106주기 추모식과 '제7회 최재형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선생의 '폐치카(난로)' 정신을 오늘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되짚고, 이를 각 분야에서 실천하는 인물들을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약전 봉독, 동의회 취지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특히 단꿈아이 설민석 대표가 낭독한 동의회 취지문은 "작은 힘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당시 독립운동의 핵심이었던 '연대와 조직'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영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재형 선생은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기업가이자 교육자,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며 "막대한 부를 이루고도 이를 개인을 위해 쓰지 않고 동포와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한 점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 이기심이 팽배한 사회에서 최재형 선생의 삶은 타인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이 정신이 재외동포와 기업인 사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 역시 추모사를 통해 "연해주에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동의회를 조직해 무장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한 정신적 지주이자 후견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선인 최고의 부자였지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느라 집 한 채 남기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생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제7회 최재형상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폐치카 정신'을 실천한 수상자들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먼저 수상축하 인사에 나선 최재형 기념사업 후원회장인 수산그룹 정석현 회장은 최재형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짚었다.

정 회장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재산과 삶을 내놓은 결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 자리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뜻이 시간을 넘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재형 선생의 정신은 특정 시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 전반에서 살아 움직이고



행사에 참가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있다"며 "수상자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문 수상자인 한영수 (재)고려인외국 이사장은 "독립운동가의 뜻을 이어 고려인 청소년들의 꿈을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통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공헌·복지 부문 수상자인 하경서 카이서 회장은 엘살바도르 한인회와 한글학교를 재건한 사업가이다. 그는 "오늘 4시에 한국에 도착할 만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이 영광은 묵묵히 함께해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동 부문 수상자인 김희진 이사장은 "이 상은 개인이 아닌 발달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차세대 리더상 수상자인 김진수 간호사는 "받은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며 "최재형 선생의 정신을 이어 지속적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부문상'에는 선정된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사장과 프랑스 한글학교협의회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고 추후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설민석 대표, 역사음악연구소 박용진 소장, 작사가 공한수, 작곡가 김덕 등 최재형 선생 선양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패도 수여됐다.

이날 추모식은 현화와 유족 인사로 마무리됐다. 최재형 선생의 외4대손 로자 카이들라토바 씨를 비롯해 200여명의 보훈단체, 고려인 단체, 재외동포 인사들이 참여해 선생의 넋을 기렸다.

(재외동포신문)

"문화로 하나 되는 동포사회... 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 확인"

재외동포청장, 4월 5일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 참석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극동지역 주민 72%의 반려동물은 고양이

극동연방관구 주민 10명 중 7명에게 가장 인기있는 반려동물은 고양이임을 '아위토' 광고 및 상품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극동연방관구 응답자의 3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34%는 2마리 이상을 키우며, 8%가 가까운 시기에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고양이이다. 극동지역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80%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2위로 응답자의 50%가 개를 키우고 있으며, 3위로 응답자의 6%가 설치류(토끼, 햄스터, 쥐 등)를 키우고, 새와 관상어를 키우는 사람은 각각 5%이며, 거북이는 3%, 집토끼는 1%가 키우고 있다. 극동지역 주민들은 반려동물 관리에 월평균 4,714루블리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비용은 다양하다. 응답자의 28%는 2000 루블리 이하 지출, 43%가 2,000 루블리 - 5,000루블리 지출, 15%가 1만 루블리 이하 지출, 7%가 2만 루블리 이하 지출, 2%는 2만 루블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주요 항목으로는 사료와 간식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91%가 사료와 간식을 구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설문조사 응답자 중 31%가 위생용품에 지출, 30%가 장난감 구매에, 24%가 동물 의약품 구매에, 20%가 동물병원 진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13%가 반려동물의 목줄이나 액세서리에 지출을 하고 있고, 9%가 반려동물을 위한 가구 구매에, 8%가 반려동물의 의류 구매에, 6%가 반려동물의 미용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구매가 온라인상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현재 극동연방관구의 주민 22%가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먹이와 액세서리 및

기타 용품들을 구매하고 있으며, 9%가 반려동물 전문 온라인 상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Лидируют кошки: домашние животные есть у 72%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У семи из десяти (72%) жителей ДФО есть домашние животные,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питомцы — кошки. Это следует из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экспертами «Авито Рекламы» и «Авито Товаров».

Так, одно животное живет дома у 38% опрошенных, два и более — у 34%. Еще 8%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планируют завести питомца в ближайший год.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питомцы — кошки. Их держат 80% владельцев животны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торое место за собаками — 50% респондентов.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замыкают грызуны — 6%. В топ-5 вошли домашние птицы и аквариумные рыбки — по 5%. Далее следуют черепахи и кролики — 3% и 1%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тратят в среднем 4 714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содержание питомцев. Расходы варьируются: 28%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тратят не более 2 000 рублей, 43% — от 2 001 до 5 000 рублей, 15% — до 10 000 рублей, 7% — до 20 000 рублей, 2% — более 20 000 рублей. Основная статья расходов — корм и лакомства. Их покупают 91% владельцев животных. Кроме того, респонденты тратятся на средства гигиены (31%), игрушки (30%),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24%) и ветеринарную помощь (20%).

Аксессуары (например, поводки и ошейники) покупают 13%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мебель для животных — 9%, одежду — 8%, услуги груминга — 6%.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тренд — траты на животных переходят в онлайн. Сейчас 22% жителей ДФО используют онлайн-площадки для покупки корма, аксессуаров и других товаров для животных, 9% — профиль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

주택 근처에 비둘기 먹이 줄 경우 벌금 부과

집 근처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3천 루블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 올라 오쉬키나가 러시아 통신사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오쉬키나 변호사는 비둘기 먹이 주기가 위생 규정 위반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들이 한곳에 대규모로 모이면 감염병 위험과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설치류를 유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비둘기가 자동차 도장면과 벤치, 놀이터 시설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러시아 행정법전 제8.2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먹이를 준 뒤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고 갈 경우 무단 투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민에게는 최대 3천 루블, 재범 시에는 최대 5천 루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쉬키나 변호사는 지역 정부가 별도의 추가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며, 지역 행정법에 따라 추가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Россиянам грозит штраф за кормление голубей у дома

За кормление голубей у дома россиянам грозит штраф до 3 тысяч рублей.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юрист Ольга Ошкина,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Как отметила Ошкина, кормление голубей может нарушать требования СанПиН. Зачастую доброта к пернатым приводит к большому скоплению птиц, что создает риски инфекций, загрязнения территорий. Кроме того, это может привлекать грызунов.

Юрист добавила, что не стоит забывать, что голуби могут испортить краску машин, лавочки 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Нарушение попадает под статью 8.2 КоАП РФ — несоблюд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в област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Часто люди оставляют корм, что можно квалифицировать как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е размещение отходов потребления.

За проступок гражданам могут выписать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3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повторное нарушение — 5 тысяч рублей.

Ошкин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могут устанавли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гражданина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о статье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АП.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